【연구논문】

초기 미국 흑인 여성소설 연구
-*Iola Leroy, Plum Bun, Quicksand*를 중심으로-

천 승 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 교수)

I

미국 흑인문학은 미국 흑인 여성문학과 그 기원을 같이 한다. 1746년 Lucy Terry라는 열여섯살난 한 흑인 소녀가 쓴 "Bars Fight"라는 시가 미국 흑인에 의하여 쓰여진 첫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1] 미국 흑인문학은 여성문학으로 그 기록이 시작된 셈이다. Lucy Terry에 이어 Phillis Wheatley가 등장하는데 이처럼 여성 작가가 초기 흑인문학의 선두에 서게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이 시기의 흑인 남성들이 주로 남부의 노동 노예로 팔려간 반면 운좋은 상당수의 여성들은 북부의 New England 지방에 하녀로 팔려 가서 관대한 주인의 묵인이나 권장 아래 글을 배우고 백인의 문화 생활을 공유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Lucy Terry나 Phillis Wheatley는 바로 이런 운 좋은 흑인 하녀들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19세기 초 이른바 「정신적 자서전(spiritual autobiography)」이라 불리는 기록물들을 쓴 Jarena Lee, Zilpha Elan, Julia Foote같은 흑인 여성들도 노예 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북부의 자유 흑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은 대체로 당대의 백인 문학을 모방하며 흑인의 삶보다는

1) Roger Whitlow, *Black American Literature* (Totowa: Helix Book, 1984), p. 15.

그들 자신의 삶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백인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인들이 참혹하게 희생당한 한 인디안 습격 사건을 그리고 있는 Lucy Terry의 "Bars Fight"나 기독교적 은총과 사랑을 예찬한 Phillis Wheatley의 많은 시들은 그 좋은 예이다. 백인의 지적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평가받는[2] 「정신적 자서전」들까지도 흑인들의 현실적 삶에 대한 사실적 기술보다는 궁극적으로 서구적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정신적 자유와 내적 성취에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Jupiter Hammon같은 이 시기의 흑인 남성 작가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르러 흑인의 인종적 열등성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을 배경으로 노예제도를 통한 흑인 억압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어 감에 따라 흑인들의 인종적 민족적 자각 의식 역시 강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특히 1820년대 이후 Nat Turner사건을 위시한 흑인 노예들의 반란 사건, William Lloyd Garrison 등이 주도한 노예제 폐지 운동의 확산, 이 운동을 뒷받침하는 활발한 언론 활동 등은 흑인들의 자각 의식을 더욱 촉진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흑인문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리하여 노예제도의 참상을 고발하고 흑인 억압에 저항하는 이른바 「항변(protest)문학」 혹은 「프로파간다 문학」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1830년대 이후 남북전쟁 전까지 무려 30여편이 발표되면서 흑인문학의 주종을 이루게된 노예수기(slave narrative) 등 항변문학의 전통을 따른 이 시기의 흑인문학은 대체로 남성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Frances E. W. Harper의 *Poems on Miscellaneous Subjects* (1854), Sojourner Truth의 *Narrative* (1850), Harriet Wilson의 *Our Nig* (1859)는 이 시기의 중요한 흑인 여성문학의 산물로서 결

2) Eva Lennox Birch, *Black American Women's Writing: A Quilt of Many Colors*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94), p. 17.

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것이다. Frances Harper는 *Poems*를 비롯한 네권의 시집을 출간하고 후에 진정한 의미의 첫흑인 여성 소설로 평가받는 *Iola Leroy: or Shadows Uplifted*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한 최초의 본격적인 흑인 여성작가로, Sojourner Truth는 노예수기를 발표한 첫 흑인 여성으로, 그리고 Harriet Wilson은 자전적 흑인 소설을 쓴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각각 흑인문학사의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인물들이다.

한편 남북 전쟁이 끝나고 흑인문학의 핵심 주제였던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된 1860년대 이후 흑인문학 활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Reconstruction」(재편입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특히 남부에서의 흑인 차별과 억압이 더욱 심화되어 감에 따라 1890년대에 이르러 흑인문학도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Harper의 *Iola Leroy* (1892)는 바로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20세기로 이어지는 흑인 여성문학의 선봉 역할을 한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흑인 여성에 의하여 최초로 쓰여진 소설은 Harriet Wilson의 *Our Nig* (1859)라 할 수 있지만[3] 대부분의 학자나 비평가들은 Frances Harper의 *Iola Leroy*를 흑인 여성소설의 사실상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그것은 아마도 *Our Nig*가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자서전적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하여 유일하게 이 작품을 쓴 저자 Harriet Wilson을 직업적인 작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필자 역시 같은 이유로 본격적인 작가로서 일생동안 문학 활동에 종사한 Harper의 *Iola Leroy*를 진정한 의미의 첫 흑인 여성소설로 자리매김하면서, Harper와 뒤이어 등

3) Birch는 Harriet Wilson의 *Our Nig*가 일반적으로 흑인여성에 의하여 쓰여진 최초의 소설로 인정되고 있지만 Mrs Seacole의 *Wonderful Adventures of Mrs Seacole in Many Lands*가 *Our Nig*보다 한해 전인 1858년에 출판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Black American Women's Writing*, p. 24 참조.

장한 20세기 초의 Jessie Fauset, Nella Larsen을 한데 묶어 세 작가를 초기 흑인 여성소설의 대표적 작가로 다루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이 세 작가의 대표적인 소설들의 분석을 통하여 초기 흑인 여성소설의 특성과 그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고 흑인 여성소설이라는 보다 더 큰 틀에서 이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해 보려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

Ⅱ

19세기의 흑인문학이 항변과 프로파간다의 전통을 이어 왔음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이는 여성문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Frances Harper는 열렬한 노예제 폐지론자(abolitionist)로서 강연 및 문필 활동을 통하여 노예제 폐지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고 여권 신장 운동, 금주 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운동에도 깊이 관여한 작가였다. 이러한 배경은 *Iola Leroy*가 인종적 주제를 강조한 William Wells Brown의 *Clotel,* Frank J. Webb의 *The Garies and Their Friends,* Martin Delany의 *Blake* 등 흑인 남성 소설의 프로파간다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쉽게 설명해 준다.[4] 그러나 항변 문학의 전통을 따르며 흑백의 인종적 주제를 강조하여 다룬다는 공통점을 보여주면서도 Harper의 소설은, 나아가 흑인 여성소설은, 처음부터 남성소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아마도 흑인 여성 주인공, 특히 혼혈 여성 주인공에 대한 집요한 관심, 여성 및 여권 문제에 대한 강한 자의식,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주제일 것이다.

물론 여성 주인공과 혼혈 여성에 대한 관심이 흑인 여성작가의 전유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첫 흑인 소설인 *Clotel*은 바로 혼혈 흑인여성인 Clotel과 역시 혼혈인 그녀의 두 딸에 관한 이야기이며, Webb의 *The*

4) Harper당대의 Charles W. Chesnutt도 사실은 프로파간다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aries and Their Friends, 그리고 Charles W. Chesnutt의 소설들에도 많은 혼혈 흑인 여성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흑인 여성 및 혼혈 여성들이 대체로 상투적이고(stereotypical) 수동적인 유형의 인물로 도식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반하여 Harper 등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상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성을 보여주는 능동적 인물로 그려져 있다.

흑인의 상투적 인물형은 물론 백인 사회에 의하여 조작된 측면이 강하다.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흑백 간의 우열성 차이를 강조해야하는 백인 사회는 흑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열등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왔고 그러한 이미지는 오랜 상징조작의 과정을 거쳐 결국 흑인의 상투형으로 굳어진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톰아저씨(Uncle Tom)형, 희극적이고 낙천적인 어릿광대형(minstrel), 포악하고 비열한 깜둥이(bad nigger)형 등은 흑인 남성의 대표적인 상투형들이다. 흑인 여성의 경우, 백인 여성의 순수성과 우월성, 즉 순결하고 우아한 백인 'lady'의 이미지에 대조되는 음란하고 단정치 못한 탕녀(loose woman)형,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매사에 만족해하는 풍만한 체구의 유모(mammy)형 등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들과 대조적인 또 하나의 유형으로 혼혈 흑인 여성(mulatta)이 있는데[5] 대체로 비극적 가련형으로 그려지는 이들은 백인 작가나 흑인 작가의 작품에서 공히 흑인 여주인공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투적 인물형이다. 이러한 흑인 상투형들은 백인 작가들뿐만 아니라 흑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간혹 나타나는데, 흑인 작가의 경우 그것은 어찌 보면 백인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이미 사실로 굳어 버린 미국적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기술일 수도 있고 백인 출판사와 백인 독자를 의식한 작자의 전략적 배려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흑인 작가들은 백인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여된 이러한 부정적인

5) 흑인피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간주되며 정도에 따라 mulatta, quadroon, octaroon등으로 세분됨.

흑인 상투형을 거부하고 보다 긍정적인 새로운 흑인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려고 노력해 왔다. Harper는 그녀의 작가적 배경이 충분히 암시하듯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자신의 중요한 작가로서의 임무라 생각했던 대표적 흑인 작가의 한 사람이다.

*Iola Leroy*는 이러한 노력이 특히 두드러져 보이는 작품이다.[6] Iola Leroy라는 한 흑인 혼혈 여성의 기구한 그러나 성공적인 삶이 주축을 이루는 이 이야기에는 수많은 남녀 흑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여러 가지 미덕을 지닌 긍정적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 예컨대 흑인 노예들의 중심에 서서 그들의 기도 모임을 주도하면서도 군대에 간 Mars Robert의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함께 떠나기를 포기하는 이타적인 Uncle Daniel, 북군의 장군에 호소하여 Iola를 노예 신분에서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북군을 돕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정의로운 Tom (Thomas Anderson), 흑인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남자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모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활달한 Aunt Linda 등은 흑인 상투형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들이다. 특히 Iola와 Iola의 동생 Harry, Iola의 외삼촌으로 밝혀지는 Robert Johnson, Iola와의 결혼에 성공하는 Dr Latimer, Harry의 아내가 되는 Miss Delany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W. E. B. DuBois가 명명한 이른바 'Talented Tenth'에 속하는 엘리트로 그려져 있다.

Harper가 이처럼 긍정적인 미덕을 갖추고 지적 우수성을 지닌 흑인 인물들을 대거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흑인도 백인 못지 않은 훌륭한 품성과 지적 우수성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지배의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이미지가 얼마나 부당히 왜곡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강

6) Barbara Christian은 이 소설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흑인여성들의 부정적 이미지와 이런 이미지를 반박하려는 작자의 집요한 노력과의 관계를 이 소설이 극명하게 그려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Barbara Christian, *Black Women Novelists: The Development of a Tradition, 1892-1976* (London: Greenwood Press, 1980), p. 5.

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 부당함과 그 부당함이 가져오는 고통과 비극성을 가장 잘 극화시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검은 백인」이라고 불러야 할, 백인이기도 하고 흑인이기도 한, 혹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혼혈 흑인(mulatto)의 삶을 통해서일 것이다. *Iola Leroy*에 많은 혼혈 흑인이 등장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노예제도 폐지론(abolitionist) 작가들이 인종 차별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예컨대 백인의 피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백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더욱이 교양과 재능을 갖춘 그런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만들 수 있는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피부색이 덜 검은 혼혈 흑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음은 혼혈 흑인의 주제를 다룬 그의 탁월한 저서 *Neither White Nor Black*에서 Judith R. Berzon이 이미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7]

Iola는 Berzon이 예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혼혈 흑인의 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큰 남부 농장의 주인인 백인 아버지와 그의 전 노예인 혼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Iola는 북부의 한 도시에서 아름다운 백인 소녀로 유복하게 자라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황열병으로 죽는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흑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고 서류상의 하자 때문에 결국 어머니와 함께 남부로 팔려가는 수난을 겪게 된다. 이 시점까지의 Iola의 삶은 흑인 상투형의 하나인 「비극적 혼혈녀」(tragic mulatta)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북전쟁 중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야전 병원의 간호사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진다. 결혼해서 북부로 가서 함께 살자는 백인 의사 Dr Gresham의 구애와 청혼을 거부하면서 Iola는 전쟁이 끝나면 어머니를 찾아나설 것을 다짐하며, 병원이 문 닫은 후에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며 자유의 몸이 된 흑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여기서 Iola가 Dr Gresham의 구애와 청혼을 거부하는 일, 어머니를 찾아나서

7) Judith R. Berzon, *Neither White Nor Blac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8), p. 13.

는 일, 흑인들을 가르치는 일이 모두 그 나름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Dr Gresham의 청혼을 거부하는 일은 안락한 백인의 삶에의 유혹과 동화를 거부하는 일에 다름 아니며, 또한 흑인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보다 큰 대의명분을 위하여 개인의 사사로운 애정 문제를 희생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를 찾아나서는 일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 즉 정체성을 찾는 일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이다. 흑인들에게 특히 혼혈 흑인들에게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노예제도가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파괴한 가정의 의미가 흑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흑인들을 가르치는 일 역시 한편으로는 흑인들, 특히 흑인 여자들에게 대체로 거부되어 온 「일할 권리」를 찾아 행하는 일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제로부터 해방된 흑인들에게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일이기도 하다.

작자는 Iola의 행동을 통하여 암시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큰 갈등 없이 순조롭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간다. 소설의 후반에서 Robert Johnson은 어머니와 누나를, Iola는 어머니와 동생을, 군 입대로 헤어진 Harry는 누나를 각각 찾아나서서 이들은 결국 모두 재결합하기에 이르고 또한 옛 고향 동네에서 이제는 대부분 성공한 많은 이웃들을 만나 회포를 나누게 된다. 한편 작자는 이러한 과정 중에 Iola와 Robert로 하여금 북부를 방문케 함으로써 거처와 일자리를 구하며 그들이 겪는 고초를 통하여 북부의 심각한 인종차별 상황을 고발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또한 흑인 지식인들의 토론 모임을 마련하여 이민, 여성 교육, 흑인의 도덕적 발전 등 Harper 자신이 글과 강연을 통하여 이미 개진한 바 있는 여러 가지 흑인의 당면 과제에 관한 견해를 그들의 대화와 토론의 내용을 통하여 밝혀 보이고 있다. 이야기의 끝 부분에서 모든 주요 인물들은 남부로 돌아가 옛날 노예 시절의 그곳에 정착한다. 그리하여 Iola는 주일학교의 교사와 교회 봉사자로서

일하며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Iola와의 결혼에 성공한 Dr Latimer는 흑인 병원의 명망있는 의사와 개혁가로 활약하고, Harry와 그의 아내가 된 Miss Delany는 큰 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Robert는 옛 농장을 사들여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 분양 사업을 벌이는 등, 그들 모두 흑인 사회의 지도자로서 흑인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Iola Leroy*는 흑인 항변소설 혹은 프로파간다소설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노예제도의 잔혹한 부도덕성의 고발, 노예 해방 후 재편입기를 거치며 더욱 악화되어가는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비판, 그리고 흑인의 삶과 지위의 향상을 위한 개혁 정신의 고취에 있어서 이 작품이 흑인소설로서 지니는 역사적 정치적 의의는 출판 당시의 서평들이 뒷받침하듯[8]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프로파간다 소설로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성공을 위하여 이 작품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많은 한계를 그 댓가로 치루고 있다. 예술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흑인 미학을 강조하며 흑인문학이 활기를 띄던 Harlem Renaissance의 1920년대나 1970년대에 특히, 이 작품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결함의 하나는 사실성과 박진감의 결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너무 많은 세부적인 사건들과 너무 많은 인물들을 산만하게 엮고 있는 그 구성의 허술함, 정치적 의도가 앞서는 지나친 계몽성과 감상성, 그리고 당대 흑인들 특히 흑인 여성들의 삶에 대한 비사실적인 묘사 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성의 결여는 또한 Robert Bone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 초기 흑인 작가들의 인물 처리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Bone에 따르면 초기의 흑인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정적인 흑인 상투형과 그에 대항하는 작자 자신의 또 하나의 상투형 사이에 갇혀서

8) Hazel V. Carby, "Introduction" to Frances E. W. Harper, *Iola Leroy* (Boston: Beacon Press, 1987), p. viii.

자신이 다루는 흑인 인물들을 살아있는 복합적 인물로 그리지 못하고 결국 멜로드라마의 정적이고 유형적인 인물로 머물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인물 형상화를 통한 사실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9] Harper의 Iola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흑인상투형에 대항하는 작자 자신의 또 다른 상투형 인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인물형상화의 한계가 작품의 사실성 결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one은 이런 방식의 인물 처리가 초기 흑인 작가들이 차용한 당대의 대중소설 형식인 멜로드라마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10] 선과 악의 갈등을 주로 다루는 소재, 모랄 의식의 강조, 악덕과 미덕을 명쾌히 구현해 보이는 분명한 유형적 인물, 인물과 행동에 있어서의 극명한 대조, 이러한 특징의 멜로드라마가 노예제도의 부도덕성과 잔혹성을 호소하려는 흑인 작가들의 목적에 아주 적절한 소설 형식이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편 Barbara Christian은 *Iola Leroy*의 작품 내용, 특히 Iola 등 여성 인물들의 삶에 관한 내용이 사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설 *Iola Leroy*의 내용과 재편입기의 대부분의 흑인 여성들의 삶에 대한 Harper의 세부적인 실제 관찰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는 당시의 소설 형식과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 여성들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11] Christian이 지적하는 이 소설 형식은 Bone이 언급한 멜로드라마와 사실상 같은 성격의 것으로 Christian은 그의 다른 글에서 이 형식을 로맨스(romance)라는 좀 더 구체적인 장르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Christian에 따르면, 재편입기 중에 더욱 악화되어 가는 흑인 탄압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백인들의 가슴에 더 강한 정의감과 더 기독교적인 휴매니즘을 고취하기 위하여」 Harper는 Mrs Stowe 등 노예폐지론 작가들이 프로파간다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9) Robert Bone, *The Negro Novel 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p. 24.
10) Bone, pp. 23-24.
11) Babara Christian, *Black Women Novelists,* p. 5.

활용해 온, 주로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고아(高雅)한 이야기를 통해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대중적 호소력을 얻기에 가장 적절한, 로맨스 소설의 형식을 택했다는 것이다.[12]

그런데 로맨스는 하나의 소설 형식으로 몇 가지 관습적 제약, 특히 사회가 정의하는 이상적 여성으로서의 여주인공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로맨스에서 아름답고 순결하고 교양있는 이 여주인공은 그들의 이상적인 성격과 갈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상황, 특히 그들의 이상적 미덕이 사악하고 타락한 세계의 위협에 직면하는 도덕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주인공은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거나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주는 효과는 그처럼 완벽한 이상적 미덕이 타락한 세계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타락한 세계가 변해야한다는 교화적 깨달음이다.[13] Harper가 로맨스를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가장 효과적인 소설 형식으로 택한 이상 로맨스의 정석에 따라 1890년대 당시의 흑인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그의 지식을 접어두고 Iola를 로맨스의 이상적 여주인공형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즉 Harper의 목적은 리얼리티의 제시나 진실의 추구가 아니라 흑인 특히 흑인 여성들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맨스 소설이라는 당시의 가장 대중적인 형식을 사용하여 그 시대의 형식과 의미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리얼리티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Christian의 분석이다.[14]

그러나 백인 독자를 의식하여 백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인물 묘사나 인물 처리 방식은 근원적으로 백인의 인종차별적인(racist) 가치관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아이러니칼한 한계를 지닌다. Iola를 비롯한 Harry, Robert, Dr. Latimer 등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백인의 외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백인으로 행세하는 'passing'을 거부하고 결연히 흑

12) Barbara Christian,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pp. 168-169.
13) *Ibid*, p. 168.
14) *Ibid*, p. 170.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지만 흑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 외에 그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 양식에 있어서 백인과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즉 백인과의 차별적인 흑인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렇듯 부당한 인종 탄압 상황에 대하여 흑인도 백인과 마찬가지임을 강조하며 백인의 동정심과 정의감에 호소하는 초기 흑인소설의 이러한 소극적 방식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백인동화주의적(assimilationist)일 수밖에 없고 *Iola Leroy* 역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Harper 자신이 밝힌 바, 백인 독자들을 겨냥한 항변소설의 한계이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소강 상태를 지나 1920년대, 흑인 문학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이른바 Harlem Renaissance의 시기에 등단한 두 흑인 여성 작가 Jessie R. Fauset와 Nella Larson의 작품에서 우리는 Harper의 그것과 유사한듯하면서도 아주 대조적인 다른 세계에 접하게 된다.

III

Fauset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만한 *Plum Bun*의 경우, 백인에 가까운 아름다운 혼혈 흑인 여성의 여주인공 설정, 자기 성취에 이르는 굴곡의 성장 과정, 흑인 중산층 삶의 배경, 결혼, 가정, 커리어 등의 여성적 주제, passing의 모티프 등, *Iola Leroy*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Plum Bun*이 *Iola Leroy*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작자가 부여하고 있는 여주인공의 성격과 여주인공의 삶을 통하여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차이, 즉 인물형상화 방식과 주제의 차이에서 온다. Iola는 백인에 의하여 조작된 측면이 강한 흑인 상투형에 대항하여 작자가 창출해낸 긍정적인 새로운 인물형에 틀림없지만, 흑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또 하나의 상투형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 이러한 정치적 프로파간다 소설의 틀 속에서 하나의 상투형으로서의 Iola는 살아있는 한 개인으로 보다는 한 계층 또는 집단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기적 유형의 인물로 그려질 수 밖에 없다. Iola의 삶 또한 한 흑인 여성의 개인적인 복합적 삶으로서보다는 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유형적, 전범적 삶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Iola Leroy*에서 결혼, 가정, 커리어 등 여성적(feminist)문제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처럼 Iola의 이데올로기적 삶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Iola Leroy*와는 대조적으로 *Plum Bun*은 Angela Murray라는 한 흑인 혼혈 여성의 사적이고 내밀한 개인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의 성장소설 혹은 Bildungsroman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소설은 *Plum Bun* (건포도빵)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건포도빵을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옛 동요의[15] 내용에 빗대어 한 소녀가 낭만적 환상과 좌절을 거쳐 각성에 이르는, 떠남과 방황과 귀환의 성장과정을 그려 보이고 있다. 1부인 "Home"에서는 건실하고 행복한 Murray가족과 두 딸 Angela와 Virginia가 소개되는데, 피부색이 희어서 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늘 행복과 자유를 꿈꾸며 행복과 자유를 모두 보장받은 백인의 삶을 동경하는 Angela와, 가사 돕는 일과 교회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며 가족과의 화목한 삶을 즐기는 동생 Virginia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에 항상 불만과 불안을 느끼는 Angela는 미술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결국 'passing'을 해서 자신의 삶을 찾기로 결심하고 뉴욕으로 떠난다. 'passing'의 문제에 대해서 Angela는 이렇게 자문한다. passing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인가?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던가? 백인은 'power'를 가지고 있고 'power'의

15) "To Market, to Market/To buy a Plum Bun;/Home again, Home again/Market is done."

뱃지는 'whiteness'가 아닌가?[16]

2부 "Market"는 뉴욕이라는 큰 시장에서 Angela가 미술학교를 다니며 백인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다루고 있다. 주로 부르조아 계층에 속하는 진보적인 신여성 타입 등 여러 유형의 백인 여성들과의 교유, 그 교유를 통하여 행복과 자유와 'power'에 대한 열망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미술학교 동료인 Anthony Cross와의 우정, 특히 power와 부와 지위를 보장해 줄 결혼 대상 후보로서의 Roger Fielding이라는 백인청년과의 이성 교제가 2부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3부 "Plum Bun"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시장에 가서 사올 맛있는 건포도 빵의 상징이랄 수 있는 백만장자의 아들 Roger와 Angela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흑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자인 Roger는 Angela를 백인으로 알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Angela 역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Roger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백만장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Roger의 맹종과 그의 타고난 바람끼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파경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Angela는 결혼과 순수한 사랑 사이의 괴리,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의 한계를 절감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애써 다짐을 한다. 한편 Virginia는 음악 교사의 일자리를 얻어 New York의 Harlem으로 오게 되고 Angela는 Harlem에서 한 흑인 연사의 훌륭한 강연을 듣고 흑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동류 의식을 느끼는 계기를 맞기도 한다.

4부인 "Home Again"은 좌절과 고독감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그리워하는 Angela의 공허한 삶과, 처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구와 직업과 안정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Virginia의 활기찬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Angela는 그 공허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진정으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없고 자신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Anthony

16) Jessie R. Fauset, *Plum Bun: A Novel without a Moral* (Boston: Beacon Press), p. 73.

Cross를 다시 만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결혼이란 수단이 아니라 목표 자체여야 하리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칼하게도 서로를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Anthony와 Angela는 각각 자신이 유색인종임을 밝히게 되지만 Anthony에게는 이미 악혼녀가 있고 그 약혼녀가 Virginia임이 드러난다. Anthony는 Angela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녀와 다시 결합하기를 원하지만 Angela는 Virginia를 위해 Anthony를 거부하고 「아무와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병상에 누워 죽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끈질기게 살아남아야했던 흑인 조상들의 잔혹한 운명」을 생각하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리라고 다짐한다. 한편 Virginia는 사실상 Anthony보다는 고향친구인 Matthew와 결혼하고 싶었음을, 그리고 아직도 Matthew를 사랑하고 있음을 Angela에게 고백한다. Angela는 이제 Virginia을 자주 만나며 숨김 없이 자기 모습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Harlem의 삶에 점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한다.

마지막 5부 "Market Is Done"은 화가로서의 자신의 커리어와 「유색인이라는 자신의 변측적인 위치」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Angela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passing'에 대한 깊은 회의와 갈등을 느끼고 있던 Angela는 친구인 Miss Powell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상 거부를 당한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결국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자신이 유색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다. 직장에서 곧 해고되고 장학금 수혜의 기회도 잃게된 Angela는 고향인 Philadelphia에 들른 후 파리 유학길에 오른다. 이 이야기는 Virginia가 Angela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이 Anthony로 밝혀지고 Virginia는 Matthew와 재결합한다는 다소 안이하고 갑작스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한 아이가 'plum bun'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원하던 'plum bun'을 사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소설의 題辭(epigraph)로 쓰이고 있는 동요의 내용이 시사하듯, 이 소설은 Angela라는 한 소녀가 'plum bun'

을 구하려는 꿈을 안고 집을 떠나 뉴욕이라는 큰 시장에 가서 희망과 좌절과 방황의 여정 끝에 결국 'plum bun'을 구한다는 즉 무지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경험의 과정을 거쳐 어떤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오는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구조를 갖춘 작품이다.

작자는 이 소설에 짐짓 "A Novel without a Moral"이라는 부제를 달아놓고 있지만 사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은 'plum bun'으로 상징되는 그 '깨달음'의 모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 작품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모랄을 담고 있는 "A Novel full of Morals"인 셈이다. 이 소설이 암시하는 모랄, 그 깨달음의 모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plum bun'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plum bun'의 일차적 의미는 오얏빵, 좀 더 일반적으로는 건포도를 넣어 만든 건포도빵을 뜻한다. 'plum'은 또한 뭔가 좋고 훌륭한 물건이나 일을 뜻하는 속어적 의미도 있고, 그 연장선에서 재산, 부자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plum bun'은 모두가 원하는 좋은 물건, 훌륭한 일, 부자같은 것이다. 그래서 동요 속의 아이가 원하는 'plum bun'은 맛있는 건포도빵이고, Angela가 얻기를 바라는 'plum bun'은 자신에게 자유와 행복과 "power"를 보장해 주는 백인의 삶, 그런 삶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부유한 백인 남자와의 결혼인 것이다. Angela의 'passing'은 바로 그러한 백인의 삶의 실습이요, Roger와의 사랑은 그러한 결혼에 이르는 전초 작업의 과정이다. Angela와 Roger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3부의 소제목이 "Plum Bun"인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Angela는 결국 이 'plum bun'을 얻는데 실패한다. 스스로의 커밍아웃으로 끝이 난 그녀의 'passing'은 백인의 삶을 위한 모의 연습에 그치고, 불안전한 착상(着床)으로 시작된 Roger와의 사랑 역시 유산되고 만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을 가져온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Angela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가 가져다 주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깨달음의 결과로 얻은 것, 그것이 진정한 'plum bun'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Angela는 비록 세속적인 'plum bun'을 얻는데는 실패했지만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정신적 'plum bun'을 얻는 더 큰 성공을 이룩한 것이다.

그렇다면 잃음으로해서 얻게된 이 아이러니칼한 성공, 즉 Angela가 궁극적으로 얻게된 'plum bun'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인가? 아마도 가장 가시적인 'plum bun'은 Anthony와의 결합으로 결실을 맺은 진정한 사랑의 성취일 것이다. 그것은 Roger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결혼 사이의 깊은 괴리를 경험한 후 Angela가 이르게된 깨달음, 즉 결혼이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인, 순수한 사랑의 결실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가져다 준 귀한 선물인 것이다. Angela가 얻게된 또 하나의 'plum bun'은 세속적 삶을 즐기는 방편이나 세속적 성공에 이르는 수단으로 생각해 온 자신의 예술을 일생의 커리어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그 자아정의(self-definition)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plum bun'은 'passing'으로의 오랜 방황 끝에 결국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에 성공케한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다. Anthony와의 진정한 사랑의 성취나, 커리어로서의 자신의 예술에 대한 확신도, Angela가 흑인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옴으로써 오직 가능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건포도빵」이라는 'plum bun'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plum'은 이 경우 'raisin' (건포도)을 뜻하는데, 'raisin'은 그 검보라 색깔이나 말라 쪼그라든 모양으로 해서 「흑인」이나 「흑인의 삶」을 연상시키는 말이다.[17]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plum bun'이라는 말은 동화 속의 아이에게는 맛있는 건포도빵을, 실제 이야기 속의 Angela에게는 귀중한 흑인의 정체성을 각각 뜻하는 이중적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lum bun'의 이중적 의미를 통하여 동화 속의 단순한 환상 세계와 소설 속의 복합적인 현실 세계를 교묘히

17) 'raisin'이라는 말은 Langston Hughes의 유명한 시 "Dream Deferred"에 나오는 'raisin in the sun'이라는 싯귀로 해서, 그리고 Lorraine Hansberry가 자신의 희곡의 제목으로 이 글귀를 차용함으로 해서 이제는 흑인과 흑인의 삶을 상징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치하고 있는 이 작품의 구성상의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다. Jacquelyn Y. McLendon이 적절히 시사하고 있듯이 인종문제에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해온 Fauset에게는 이러한 「동화의 아이러니칼한 전도(a fairy tale's ironic inversion)」가 피부색, 인종, 계급, 성(gender)에 대한 미국 백인 사회의 지배 담론적 허구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18]

사실 이러한 허구를 드러내 보이는 Angela의 'passing'에 대해서도 작자의 비판은 비교적 온건하다. 흑인의 삶에 대한 왜곡된 백인의 가치관을 수용케함으로써 자아성취와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방해하는 Angela의 오도된 'passing'을 작자는 물론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passing'을 통하여 'Angela'가 시도하는 자아확인, 자기향상, 성공의 꿈의 추구, 그리고 「인종적, 성(gender)적으로 그녀에게 제한을 가하는 환경으로부터 탈출」[19] 하려는 그녀의 노력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그녀를 백인 문학을 모방하는 온건한 전통주의자로, 때로는 백인문화지향적인 흑인 부르조아 계층을 대변하는 작가로 오해하거나 폄하하기까지 하는 것은[20] 바로 이러한, 흑인도 백인 중산층의 생활 방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Fauset의 태도에 기인할 것이다. 물론 Fauset가 그의 작품에서 교육받은 혼혈 흑인 지식인과 흑인 부르조아 계층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auset 자신이 그러한 계층에 속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를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Fauset가 그의 작품을 통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피부색, 인종, 계급, 성(color, race, class, gender)」의 쟁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화하기 위하여는 교육 받은 중류층 혼혈 흑인 여성을 작품의 중심 인물로 삼을 필요가 있었을 것임

18) Jacquelyn Y. McLendon, *The Politics of Color in the Fiction of Jessie Fauset and Nella Larsen* (Charlotte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5), p. 29.
19) McLendon, p. 39.
20) Judith R. Berzon이나 Imamu Amiri Baraka 같은 흑인비평가는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21]

Deborah McDowell의 지적처럼[22] Fauset의 가장 주요한 주제는 백인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인종적, 성적, 계급적 권력 관계에 대한 탐색과 비판이라 할 수 있다. Fauset가 즐겨 다루는 여러 주제들, 예컨대 흑인 중산층의 삶에 대한 비판적 옹호, 백인 남성 특권과 성적 억압의 관습, 인종주의와 섹시즘(sexism)의 복합적 관계, 권력 수단으로서의 결혼과 'passing'의 문제 등은 「미국 백인지배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비판」이라는 큰 주제의 포괄적 틀 안에서 모두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의 강도가 비교적 온건한 것은 Fauset의 특징이자 그의 한계라 볼 수 있다. 그 한계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명문 Cornell대학까지 졸업한 비교적 유복한 작자 자신의 성장 과정, Harpe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가 택한 'romance'적 소설 형식에서 오는 센티멘탈리즘, 근본적으로 흑인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흑인의 삶을 옹호하는 그의 단순하고 소극적인 인종적 태도에 기인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대로 Harper와 Fauset가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 소설 형식을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듯이, Fauset와 그의 동시대 여성 작가인 Nella Larson 역시 미국 흑인 중산층의 삶과 혼혈 여성의 문제라는 공통된 소재를 다루면서도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름은 흑인 중산층의 삶을 보는 작가의 시각과, 인종과 성에 대한 여주인공의 태도와,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서술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온다.

---

21) McLendon, p. 37.
22) McDowell, "Introduction" to Jessie R. Fauset, *Plum Bun*. p. xvi.

IV

Larson의 *Quicksand*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 중산층의 삶을 비판적으로 보는 아이러닉한 시각, 인종 성 계급의 문제에 대한 여주인공의 복합적인 애증의 갈등, 그리고 그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심층적으로 묘사하는 섬세한 표현 방식으로, 같은 해(1928)에 발표된,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Plum Bun*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작품이다.

이 소설의 題辭(epigraph)로 사용된 Langston Hughes의 다음 시는 이 소설의 주제를 아주 적절히 의미깊게 암시하고 있다.

> My old man died in a fine big house,
> My ma died in a shack.
> I wonder where I'm gonna die,
> Being neither white nor black.

이 소설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이 시의 화자처럼, 혼란과 좌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방황하는 Helga Crane이라는 한 혼혈 흑인 여성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Helga의 방황은 남부의 Naxos라는 흑인 학교의 교사직을 떠나 북부 Chicago로 향하는 그녀의 여정으로 시작된다. Naxos라는 이름이 상징하듯[23] Anglo Saxon 백인 중류사회의 청교도적 가치관을 가르치며 「모든 열정과 자발성을 억압」하는 이 학교의 구속적 분위기와 자신을 'lady'로 부르며 설득하려는 Robert Anderson교장의 위선적 태도에 반발하여 Helga는 과감히 Naxos를 떠난다.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Chicago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불행했던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의 삶과 죽음 그리고 흑인과 백인 사회 사이에서 항상 외로웠던 자신의 어

23) 'Naxos'는 'Saxon'의 철자 순서를 바꾼 anagram이다. 이 학교는 그 교육지침으로 하여 Booker T. Washington의 Tuskegee대학을 곧 연상시킨다.

린 시절을 회상한다. Chicago에 도착해서 그녀는 찬 공기만큼이나 상쾌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백인인 Uncle Peter의 새 부인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곧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힌다. 다행히 부유한 Mrs Hayes-Rore의 강연 여행을 돕는 일자리를 얻어 New York으로 온 Helga는 Harlem 생활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같은 소속감을 느끼는 한편 Mrs Hayes-Rore의 조카인 Anne Grey와 살면서 부르조아 사회의 물질적 만족감이 주는 자유의 즐거움을 잠시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서 Helga는 다시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으로 불안해지고, 백인 중산층의 삶을 모방하는데 열심이면서도 늘 인종 문제에만 집착하는 Anne의 위선적인 태도에 환멸감을 느낀다. 이러한 실의 상태에 빠진 Helga에게 뜻하지 않게 Uncle Peter로부터 5천불의 유산이 날아들고 그녀는 그 돈으로 이제 자유롭게 뉴욕의 구속을 벗어나 이모가 살고 있는 Copenhagen으로 떠날 계획을 세운다.

Copenhagen으로 떠나기 전, 친구들에 이끌려 Harlem의 술집을 찾게 된 Helga는 음악과 춤으로 술렁대는 Harlem 술집 특유의 분위기에 빠져들며 갈등을 일으키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 ... For the while Helga was oblivious of the reek of flesh, smoke, and alcohol, oblivious of the oblivion of other gyrating pairs, oblivious of the color, the noise, and the grand distorted childishness of it all. She was drugged, lifted, sustained, by the extraordinary music, blown out, ripped out, beaten out, by the joyous, wild, murky orchestra. The essence of life seemed bodily motion. And when suddenly the music died, she dragged herself back to the present with a conscious effort; and a shameful certainty that not only had she been in the jungle, but that she had enjoyed it, began to taunt her. She hardened her determination to get away. She wasn't, she told herself, a jungle creature. ...[24]

24) Larson, Charles R. ed., *An Intimation of Things Distant: The Collected Fiction of*

흑인의 삶의 원시적 열정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러한 삶을 외면하고 거부하려는 Helga의 이중적인 모습은 Helga 자신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흑인 부르조아의 위선적 모습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칼하다. Harlem에서의 이러한 착잡한 경험을 떨쳐버리려듯 Helga는 곧 Denmark행 기선에 오른다.

Denmark에 도착한 Helga는 이모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Copenhagen의 백인 부르조아 사회에 소개되고 그 이국적인 풍모로 해서 곧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흑인 사회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물질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Copenhagen의 새 생활에 Helga는 한동안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며 유명한 화가인 Axel Olsen의 청혼을 받기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자신을 희귀한 상품처럼 생각하는 Olsen의 청혼을 거절하고 Helga는 차츰 Denmark의 생활에 막연한 불만을, 그리고 미국에 대한, 흑인의 삶에 대한 강한 향수를 느껴 잠시 미국에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다시 찾은 New York Harlem의 열띤 생활에서 Helga는 흑인과의 유대감을 운명적으로 확인하며 분노처럼 자신을 괴롭히던 Denmark에서의 고독감에서 얼마큼 벗어나지만 미국땅에서 영원히 흑인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 생각하며, 「유럽의 육체적 자유」와 「미국의 정신적 자유」, 두 세계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는다. 이제는 Robert Anderson과 결혼한 Anne의 달라진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던 어느날, 한 파티에서 우연히 Anderson으로부터 키스를 받게된 Helga는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는 Anderson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고 결국 Anderson과의 모험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였음을 고백하는 Anderson에게 충격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격심한 자기 혐오의 수렁에 빠진 Helga는 어느 폭풍우치는 날 미친 듯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실제로 하수구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간신

Nella Larson (New York: An Anchor Book, 1992), pp. 89-90.

히 피신해 들어간 가게앞 교회(storefront church)의 격정적인 춤과 노래의 예배에 빠져든 Helga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환각적인 종교적 체험을 하고 Pleasant Green 목사의 부축을 받아 호텔로 돌아온다. 그 종교적 체험의 순간을 작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 . . The yelling figures about her pressed forward, closing her in on all sides. Maddened, she grasped at the railing, and with no previous intention began to yell like one insane, drowning every other clamor, while torrents of tears streamed down her face. She was unconscious of the words she uttered, or their meaning: "Oh, God, mercy, mercy. Have mercy on me!" but she repeated them over and over. . . .
>
> The thing became real. A miraculous calm came upon her. Life seemed to expand and to become very easy. Helga Crane felt within her a supreme aspiration toward the regaining of simple happiness, a happiness unburdened by the complexities of the lives she had known. (p. 142)

거의 자포자기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Helga는 기적처럼 갑자기 찾아든 마음의 평온함 속에서, 신의 자비와 단순한 행복에의 간절한 소망을 계시처럼 느끼며 자신을 구원해줄 어떤 절대적인 힘을 발견한 듯한 종교적 깨달음에 이른다. 그리고 그 절대적 힘과 종교적 계시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기라도 하듯 Green목사와 전격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가 목사로 일하는 Alabama의 한 조그만 마을로 떠난다. 그곳에서 Helga는 처음 얼마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에 만족하며 그 단순한 행복감을 얻은 듯한, 이전의 모든 굴욕과 절망의 보상으로 드디어 뭔가 「실체」(actuality)를 붙잡은 듯한, 드디어 자신의 영혼의 방황이 끝난 듯한 성취감을 느낀다. 또한 그 실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남편과의 성적인 삶에서도 일생 동안 그녀에게 거부되어 온 자연스런 정서적 해방감을 느끼기

도 한다.

그러나 자식을 계속 낳아 기르고 가정의 모든 일을 꾸려야하는 노예 같은 여자의 힘겨운 삶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 가고, 그 불만은,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증오감과 종교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해 간다. 내세에 보상을 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Helga는 백인들만을 위한 신에 환멸을 느끼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 끔찍한 현실과 이 굴욕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 이 이야기는 「억압과 영락」의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나 다시 곧 다섯 번째의 아이를 가지게됨으써 流砂(quicksand) 같은 끔찍한 현실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Helga의 암울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

> How, then, was she to *escape* from, the oppression, the degradation, that her life had become? It was so difficult. It was terribly difficult. It was almost hopeless. So for a while - for the immediate present, she told herself - she put aside the making of any *plan for her going*. "I'm still," she reasoned, "too weak, too sick. By and by, when I'm really strong. . ."
> . . . Later. When she got up. By and by. She must rest. Get strong. Sleep. Then, afterwards, she could *work out some arrangement*. So she dozed and dreamed in snatches of sleeping and waking, letting time run on. *Away*.
>
> And hardly had she left her bed and become able to walk again without pain, hardly had the children returned from the homes of the neighbors, when she began to have her fifth child. (pp. 161-162)

위의 결말부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이 작품에 일관되어 나타나는 떠

남 혹은 여행의 모티프와 만족-불만족 혹은 희망-절망의 반복적 패턴은 Helga의 삶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흑인의 삶의 터전인 남부의 한 마을에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북부의 Chicago로, 흑인의 도시 삶의 상징인 New York의 Harlem으로, 백인 어머니의 조국인 Denmark의 Copenhagen으로, Copenhagen의 백인사회의 삶 이후 다시 Harlem으로, 그리고 또 다시 흑인의 삶의 근원인 남부 Alabama의 한 시골 마을로 계속 이어지는 Helga의 이 순환적인 여정은 자신의 삶의 뿌리와 정체성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흑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온전한 삶을 찾으려는 기나긴 도피와 방황과 추구의 여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만족-불만족의 패턴 역시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경계인 혹은 주변인으로서의 Helga가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감과 불안정감을, 그리고 그녀가 일시적으로 희망과 만족과 소속감을 느낀다 해도 그 불안감과 불안정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그것은 곧 좌절과 불만과 소외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암울한 결말은 Helga가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절과 불만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작자는 Helga의 좌절과 소외감은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견고한 사회의 관습과 제도, 개인의 열정과 자발성을 부정하는 경직된 사회 규범, 즉 사회의 작위적 구성(social construct)의 산물임을 암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Helga를 끊임없이 옥죄고 좌절시키고 소외시키고 방황케 하는 것은 바로 이 비인간적인 사회의 작위적 구성이다. Helga의 삶은 억압적인 사회 관습과 경직된 사회 규범으로 구체화되는 이 작위적 구성이 인종(race) 뿐만 아니라 성(gender), 섹스(sex), 계급(class)의 모든 차원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런 인간적 삶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

는가를 잘 보여준다. Helga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녀의 양가적(兩價的) 애증의 경험은 대부분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자발성에 대한 그녀의 본능적인 순수한 열망,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사회 규범의식이 강요하는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 열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빚어지는 긴장과 갈등의 산물이다. Anderson에 대하여 그녀가 느끼는 금욕적인 애증의 감정, Harlem의 삶에 대한 불안한 이중적 반응, 흑인 부르조아의 삶에 대한 아이러닉한 비판적 태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혼란스런 애증의 감정 등은 그 좋은 예들일 것이다.

때로 그녀의 순수한 열망이 그녀의 두려움을 이길 때 그녀는 만족과 희망과 성취감을 느끼며 주변인으로서의 소외감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녀의 순수한 감정과 열정은 그녀의 의식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억제당하고 결국 그녀를 다시 절망과 좌절과 소외감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끝 장면이 보여주듯이 Helga는 현실이라는 그 절망과 좌절의 유사(quicksand)에 갇혀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서도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의 몸짓을 포기하지 않는다. 작자가 이 작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것은 Helga의 비극적 삶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해답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절박하고 비장한 Helga의 몸짓 자체의 의미였을 것이다. Larsen의 이러한 의도를 McLendon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 In *Quicksand* and *Passing* Larsen shows the process by which her women protagonists resist being socially constructed even while they are ultimately trapped within those constructions. In the end, then, it is not Larsen who punishes Helga Crane; but it is Larsen who is committed to telling the "awful truth."[25]

25) McLendon, p. 93.

현실에 대한, 그 현실을 만들어낸 사회의 작위적 구성에 대한, 이러한 비장한 저항과 거부의 몸짓이, 그리고 그 몸짓에 대한 심층적인 진솔한 묘사가 아마도, 센티멘탈리즘에 머물고 만 *Iola Leroy*와 *Plum Bun*과는 달리, 이 소설을 보다 높은 비극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V

지금까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발표된, 세 여성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만한 세 작품을 통하여 초기 흑인 여성 소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세 작품은 교육 받은 흑인 혼혈 여성을 주인공으로 흑인 중류 사회를 그들의 삶의 배경으로 삼고 인종 문제를 여성 및 여권의 문제와 연결지어 다루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작품의 틀이나 소재, 그리고 인물 설정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세 작품은 비슷한 만큼이나 서로 다르다. 그 차이는 이 작품들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곧 흑인 여성 소설 자체의 변모와 발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Iola Leroy*가 발표된 19세기 말은 흑인 인종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흑인의 삶의 조건이 더욱 열악해가는 시기여서 그러한 악화된 인종 상황을 고발하고 흑인의 삶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인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다. 한편 *Plum Bun*과 *Quicksand*가 발표된 이른 바 Harlem Renaissance의 1920년대는 흑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종적 자각, 흑인 정체성과 흑인 정신의 새로운 인식, 그리고 이를 표현할 새로운 흑인 미학을 필요로 했던 시기였다.

*Iola Leroy*는 19세기 말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백인 독자들에게 흑인 억압의 상황과 그 도덕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의 개선을 호소하려는, 그리고 흑인도 백인 못지 않은 지적 우수성과 자기 향

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고취하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쓰여진,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소설이다. 따라서 *Iola Leroy*에서는 중산층 혼혈 엘리트들의 인물 설정이나 성격 묘사, 흑백 갈등의 인종적 주제, Iola 등 여성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강조하려는 가정, 결혼, 커리어 등의 여성 문제를 다루는 문학적 방식이나 기교도 모두 이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는데 충실히 기여하고 있다.

한편 *Plum Bun*과 *Quicksand*는 흑인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인식이라는 Harlem Renaissance의 정신을 반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보여주지만 같은 해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만큼 매우 대조적이다. 우선 두 작품은 *Iola Leroy*의 경우와 달리 여주인공의 내밀하고 사적인 개인적 삶을 그려보이고 있지만 *Plum Bun*이 「떠남 - 방황 - 각성」이라는 잘 짜여진 정석적 틀 속에서 긍정적인 성장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면, *Quicksand*는 여주인공의 삶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갈등의 요소와 그것이 가져오는 좌절과 실패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종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Plum Bun*이 흑인도 백인에 못지 않는 지적 우수성과 행복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Iola Leroy*가 이미 제시한 전통적인 주장을 재확인하고, 백인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인종적 권력 관계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래서 흑인 부르조아의 삶을 유보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면, *Quicksand*는 그런 주장이나 비판보다는 그러한 인종적 편견과 불평등을 가져온 사회의 작위적인 관습, 제도, 규범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억압하는가, 그리고 개인은 그러한 억압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천착하고, 그래서 흑인 부르조아의 이중적 삶의 아이러니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Plum Bun*은 흑인 여성의 커리어, 사회적인 성적 역할(gender role), 성(sex)과 결혼 등에 대하여 비교적 온건한 tone으로 그 중요성이나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Quicksand*는 이러한 문제들을 여주인공의 좌절된 삶을 통해서 훨씬 더 복합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극화시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제적 차이에 잘 상응하고 있는 그 표현 방식의 차이일 것이다. *Plum Bun*의 산문이 좀 더 설명적이고 서술적이고 온건하다면 *Quicksand*의 그것은 좀 더 묘사적이고 극적이고 격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두 소설의 표현 기법, 즉 *Plum Bun*이 대체로 따르고 있는 19세기 감상적 멜로드라마의 온건한 리얼리즘(genteel realism) 기법과 *Quicksand*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심리적 리얼리즘(psychological realism) 기법에 각각 아주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결국 주제와 표현 형식을 모두 아우르는 이 두 작품의 근본적인 차이는 보수적 전통성과 실험적 현대성의 차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lum Bun*이 *Iola Leroy*와 유사한 19세기 멜로드라마의 소설 형식을 사용하여 대체로 『온건한』(genteel) 리얼리즘을 따르고 있는 전통적 소설이라면 *Quicksand*는 Jean Toomer의 *Cane*같은 Harlem Renaissance 시기의 모더니즘 미학을 지향하고 있는 실험적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 세 작품을 통해서 본 초기 흑인 여성소설은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프로파간다 소설로부터 전통적인 온건한 리얼리즘 소설로, 그리고 다시 실험적인 모더니즘 소설로 변모하며 발전해갔다고 볼 수 있다.[26]

이후 Zora Neal Hurston, Ann Petry, Paule Marshall을 거쳐 Toni Morrison, Toni Cade Bambara, Alice Walker, 그리고 Gayl Jones와 Gloria Naylor에 이르기까지, 흑인 여성작가들은 이러한 전통성과 현대성의 새로운 변주를 거듭하는 변화와 발전 속에서, 초기의 이 소설들이 다루고 있는 인종적 주제의 여러 쟁점들, 특히 흑인 공동체와 계층의 문제, 그리고 가정, 결혼, 섹스 등의 여성적 주제를 다각적으로 탐색해 오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활발하고 풍요로운 흑인 여성 작

26) 이러한 세 작품의 특징은, 노예제폐지론자요 사회개혁가였던 Harper, 비교적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안정된 편집일과 교직에 머물렀던 Fauset, 백인어머니와 흑인아버지의 혼혈로 태어나서 항상 자신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했던 Larsen, 이 세 작가의 전기적 배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흥미롭다.

가들의 활동은 이처럼 초기 흑인 여성 작가들이 쌓아 놓은 초석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 초석을 쌓는데 공을 들인 초기의 세 여성 작가, 특히 미국 흑인 여성 소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Nella Larsen에 대하여 새로운 재평가의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